

칸트 哲學의 梗概 그 系統的 考察(九)

李相殷

理性이 지어낸 幻想은 모다 三種이 잇스니 一日 靈魂 不滅 一日 宇宙의 存在 一日 上帝의 存在이다. 所謂 靈魂이니 宇宙니 上帝니 하는 것은 原來 心理學 宇宙論 및 神學 上의 세 가지 觀念으로서 그것은 우리의 理性이 心理界 自然界 및 全世界의 各種現象을 統一하기 爲하여 지어낸 一時的 假定에 不過한 것이어늘 統一에 熱中한 理性은 마치 독감이에게 홀이운 사람 모양으로 自己의 지어낸 假定的 觀念을 實在로 認做하게 되었다. 그림으로 그것을 幻想이라고 칸트는 물렀다. 이제 一一히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A) 唯理的 心理學. 前에 佛蘭西 哲學家 데카-트는 일즉 一言의 名句를 말했스니 『내가 생각함으로 나는 存在한다』하였다. 그는 『내가 생각한다』는 事實으로써 그의 哲學의 出發點을 삼었다. 이것은 올라 우리의 知識이 成立하려면 一個의 知的 主體-我-가 업슬 수 업스며 또 一個의 『我』는 반듯이 統一의 一個가 되어야 한다. 卽 主詞를 思維하는 『我』가 同時에 반듯이 賓詞를 思維하는 『我』가 되어야 判斷이 成立 할 수 잇는 것이다. 이 까닭에 知識은 먼저 一個의 自我--를 假定하게 되나니 이 난 合理的 假定이다. 그러나 唯理論派의 心理學家는 문득의 假定으로부터 一個의 單純 不滅의 靈魂 實體를 推出해 내었다. 이것은 잘못이다. 왜 그러냐하면 여기서 假定한 바 前提는 推出한 바 結論을 保證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前提에 말한 『自我』는 論理的 『自我』요, 結論에 말한 『自我』는 實質的 形而上學的 『自我』이다. 論理學 上의 假定을 形而上學的 實在로 認하얏스니 이것이 칸트의 이른 바 謬論이다.

(B) 唯理的 宇宙論. 宇宙論에 잇서서 理性은 모든 現象의 客觀的 條件을 ■納하여 一個의 最後的 條件--所謂 宇宙--에 統一시키나니 여계서 理性은 經驗의 範圍를 超過하였다. 宇宙란 것은 다만 理性으로 想像 할 수 잇서도

經驗 할 수 업는 것이다. 理性의 마음대로 想像하는 때문에 그것은 서로 反對되는 두 가지로 생각 할 수 잇는 것이다. --우리는 이 最後的 條件이 모든 現狀의 所由來라 생각 할 수도 잇스며 그와 反對로 이 現象界는 最後的 條件의 所由來라고 생각 할 수도 잇다. 如何를 勿論하고 正論과 反論이 모다 成立 할 수 잇다. 그러나 모다 經驗的 證據는 업는 것이다. 이것을 칸트는 일러서 矛盾 (或은 二律背反)이라 하였나니 그것은 모다 네 種類가 잇다.

(一) A 正論은 말하기를 이 宇宙는 時間 上으로 始와 終이 잇고 空間 上으로 限界가 잇다.

B 反論은 말하기를 이 宇宙는 始終도 업고 限界도 업다.

(二) A 正論은 말하기를 物體는 限定업시 分割 할 수 잇다.

B 反論은 말하기를 物體는 ■後要求에 이르러 더 分割하지 못한다.

(三) A 正論은 말하기를 이 世界에는 自由가 잇다.

B 反論은 말하기를 이 世界에는 自由업다. 모든 것이 必然이다.

(四) A 正論은 말하기를 이 世界는 엇던 絕對 必然的 存在가 잇서서 이 世界의 原因이 되며 或은 그 一部分이 된다.

B 反論은 말하기를 이 世界의 가운데서나 或은 그 맞게 서나 이 世界의 原因되는 무슨 絕對 必須的 存在는 업다 한다.